



국가별 동향

브라질

닭 사육 최적의 조건

브라질이 최대 닭고기 수출국이라는 명성을 얻는 데에는 독특한 자원 환경조합이 닭고기 생산에 좋은 여건을 부여했다. 이와 동시에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진다면 브라질에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닭고기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1973년부터 2003년 사이 브라질의 인구는 78%증가한 반면 닭고기 생산량은 3,500%라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다. 이시기에 닭고기생산량은 21만 7천톤에서 765만 4천톤으로 증가했으며 연간 닭고기소비량은 2.3kg에서 33.4kg으로 증가를 야기했다.

오늘날 브라질은 최대 가금생산국이다 수출량은 1975년 3천7백톤에서 2003년에 192만2천톤으로 증가했다. 단 30년만에 4,338%라는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브라질은 닭고기생산비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경영비와 우수한 상품의 질로서도 유명하다(WP).

영국

닭보다 계란이 먼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에 관한 해묵은 논쟁이 영국의 과학자와 철학자, 양계업자에 의해 계란이 먼저인 것으로 결론 났다고 영국신문들이 26일 보도했다.

유전물질이 동물의 일생동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닭으로 진화한 최초의 새도 원래는 알속에서 배아의 형태로 존재했어야 한다는 점이 결론의 요체라고 전했다.

노팅엄대 존 브룩필드 교수(유전자학)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알속의 살아있는 기관과 닭의 DNA가 동일하다면서 “따라서 최초의 생명체는 분명히 최초의 알이었으며, 알이 먼저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킹스대 데이비드 파피뉴 교수(과학철학)도 닭의 시조는 비록 다른 종의 새가 날았더라도 알에서 출현했으며, 그 알은 속에 닭의 생명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계란으로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런던 AFP).

프랑스

AI백신 실시

프랑스 농림부는 서부 3개 지역에 AI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번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요청했다. 서부유럽지역 철새에서 확인된 H5N1형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베프는 노빌리스 인플루엔자(H5N2) 3천만수수 분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백신은 AI 감염방지책으로 전세계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효능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베프는 프랑스와 영국에서의 시장판매를 위한 허가를 받았으며 이번 백신접종이 감염된 가금류에서 비감염된 가금류로의 바이러스 전이로 인한 위험에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WP).

미국

육계에 맥주의 홉 적용

이칸소주 농업대학 가금연구자들은 맥주에 이용되는 홉과 허브가 육계에서 성장촉진작용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의 이번 연구에서는 가금사료에 홉을 첨가함으로써 육계에서 초기 성장율을 개선시키며 증체에 필요한 사료량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칸소주 팀은 홉 또는 성장촉진항생물질을 첨가한 시험구와 대조구를 비교하였다. 홉을 첨가한 시험구에서는 항생물질을 첨가한 만큼의 큰 효과는 보이지 않았으나 대조구보다는 상당한 효과는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사양조건에서 홉의 첨가로 인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육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전했다.

홉은 맥주의 중요한 첨가물로서 맥주 특유의 향기와 쓴 맛을 주며, 청징·방부 등의 효능이 있어 항균제로서 작용을 하며 단백질 혼탁을 방지하고 맥주의 저장성을 높여주는 작용도 한다. 또한 홉은 민간치료에서 식품성 치료제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WP).

태국

소규모 도축장 위생기준 시급

태국의 2,700개의 소규모 가금류 도축장 중 90%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보건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도살장들은 시설을 시정·보완 조치하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가축개발부 유콜 림람송(Yukol Limlamthong) 부장이 전했다. 그는 의회에서 6개월내에 이 법령을 승인하기 전에 도축장의 위생 시설과 위생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게 지방정부에 협조하도록 당부했다고 덧붙였다(WP).

불가리아

영세농장 도산

불가리아 가금육종조합은 지난 1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가금류 가격급락과 소비감소로 소규모 농가들의 파산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불가리아의 가금류 1kg당 생산비는 BGL2.40(미화 1.49\$)인 반면 도매가 격은 BGL1.90(미화 1.18)로 하락하면서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농장들의 도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 조합은 지난 12년이래로 예견되지 못했던 최대의 위기라고 전하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WP).